

2013

『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당선작 소개

접수: 2013.9.1. ~ 2013.9.30.

■ 주제1: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부문

- ① 외국 교과서 속의 한국 이미지에 대한 생각
- ② 외국에서의 한국 이미지 제고 방안

■ 주제2: 「한국이해자료」 부문

- ① 이해자료 활용의 활용 후기
- ② 한국이해자료 개발에 대한 제안

한국이해자료 개발에 대한 제안 주제2

과거에 캐나다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다. 당시 어렸음에도 우리나라를 캐나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회시간에 개인 프로젝트 과제가 주어질 때마다 매번 우리나라를 선택하여 조사하곤 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교류에 대해 조사해오는 과제다. 당시 우리나라에 관한 자료들을 찾기 위해 찾은 캐나다 토론토 국립 도서관에는 우리나라 관련 서적이 한 줄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거의 5권 정도밖에 없던 것 같은데 특히나 그 중 2권은 6·25전쟁과 관련된 서적이었다. 당시는 거의 8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관한 자료가 한 나라의 큰 주립도서관에 5권밖에 없다는 사실이 내게는 매우 충격이었다. 특히나 한 아이가 남한은 모르고 북한은 안다는 말을 들려주었을 때 어린 내가 느꼈던 당혹감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에 본 공모전에 관심이 갔으며 특히나 한국 문화에 대해 외국인에게 전해지는 책자가 어떨지 외국인의 입장이 되어 읽어보고 싶었기에 'Cultural landscapes of Korea'를 선택하였다.

문화 이해 자료의 제목은 'Cultural landscapes of Korea'이다. 처음 자료의 제목을 보았을 때는 인문경관이라는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에 사전을 찾아 보았더니 '사회·경제·교통·인구·취락, 지방의 전승·풍습·예술 등의 인문적 환경 조건으로 생기는 풍경·경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분명 본 책자는 우리나라의 여러 자연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은 풍경들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매우 적은 부분에만 한정되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내용과 제목의 불일치였다. 특정적으로 언급한다면 Traditional Lifestyle에서만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대단원 2에서는 과거의 신분제도와 지역별로 다른 날씨가 각 지방의 집의 형태와 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내용은 분명 제목보다 더 확장된 범위의 경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제목대로 '인문경관'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면 분명 Food에 대해서는 위의 책자와는 다른 방면으로 할 이야기가 많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는 한국은 디저트와 본 식사가 함께 나온다는 점과 개인접시로 음식이 나오기보다는 많은 양이 나와 덜어먹는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이보다는 각 지방별로 날씨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는 한국 김치의 맛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이다. 즉, 책자의 제목이 내용을 포괄할 만한 큰 범위의 단어를 사용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책자를 읽어나가면서 든 생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책자의 구성은 읽어나가기 부담스럽다. 책자는 한국의 큰 문화적인 틀들을 설명하며 각 지역적인 특색들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큰 구성상으로 이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지 않아 씨뿌리기식 수업을 듣는 기분이다. 즉,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무작정 던져주고는 독자들에게 해석과 각 씨앗들간의 관계를 이해해보라고 저자는 방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마디로 두서가 없게 정리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이 흐름을 타고 한국의 문화경관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무작정 여러 지식을 받아들이는 기분이었다.

두 번째 느낌은 큰 구성에 비해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전해 듣는 자료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책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했던 내게 자료가 다양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다가왔다. 여러 자료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는 참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특히나 책자에서는 항목들에 대해 시대별로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시대적인 큰 흐름을 살펴보게 해서 읽는 사람의 흥미를 둘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에 문화가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협소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것이 아쉬웠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음악, 미술 등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만약 인문경관과 이를 연관 짓는다면 중국이나 일본과 교류가 많았던 지방들에서 나타나는 연주 혹은 악기들의 특색에 의해 달라진 사람들의 노랫말과 같은 요소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책자를 조금 수정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마지막 부분을 바꿀 것 같다. 마지막은 local culture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방 특유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이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의 경우 놓칠 수도 있는 우리나라 지방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이에 관련된 사진들도 꽤나 적절히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 부분에 등장하는 사진들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이 외국인에게 큰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서울에만 유난히 많이 남아있는 조선의 역사적 건물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서울의 도시적인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선적인,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들의 사진을 실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이해자료로 개발되었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책자의 경우 조금 덜 투박했으면 좋겠다. 한국에 대해 이해해보고 싶은 관심이 있는 외국인은 대다수 한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싶은 것이기보다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전반적인 특징부터 알아보고 싶을 것이다. 오히려 과한 지식을 전해 주려는 시도가 그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나 한국이해자료 책자는 단지 외국의 지식인들에게만 접근 가능해서는 안되며 일반 불특정 다수에게도 흥미 있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책자의 첫 부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를 다루기 전 구어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 특히나 요즘 유행하는 한류와 같은 요소들을 예로 제시하며 재미있게 설명을 이끌어나가며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부분이 어느 책자처럼 제시되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국을 이해하는 자료인 만큼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행자의 지도처럼 한국을 설명해도 좋을 것 같다. 외국인이 그들에게는 이를밖에 익숙한 것이 없을 한국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게나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여러 요소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지명을 통해서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역사로드'를 만들어보자. 아마 구석기를 대표하는 지명에서 신석기를 대표하는 지명, 신라시대의 수도였던 경주, 이렇게 차근차근 이동하는 경로를 출발하다 보면 결국 서울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각 시기별로 대표되는 지방의 문화재를 설명하면, 지도처럼 혹은 여행일정처럼 생긴 책자를 읽는 외국인 독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자연스레 익힐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문화의 경우 '문화로드'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이는 지명을 이용해서가 아닌 우리나라의 한 시대의 대표 곡들을 모아 하나의 CD로 만들어보는 것이다. 즉, 외국인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오감을 이용하여 접해보도록 돋는 것이다.

별로 대단한 제안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안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의 책자가 더 발전하여 정말 외국인에게 매력 있는 책자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정보를 주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제2_우수상

글 | 좌하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생

(활동 국가: 한국)